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문 대통령 “국가 대전환이자 새 100년 설계”

‘세계 질서 주도’ 미래상 제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을 대한민국의 새 100년을 설계하는 국가비전으로 규정했다. 대내적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 자신감의 기제로 삼고, 대외적으로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면서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과거의 압축성장 방식으로는 한계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새로운 100년 설계를 위한 것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의 기조 연설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면서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우,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새로 마련한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임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시킨 개념이다. 코로나

“과거 압축성장 ‘한계’… 포용사회 전환 등은 시대적 과제”
데이터 댐·인공지능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그린 뉴딜 실현 10대 대표사업도 함께 제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새 일자리 190만개 창출

19의 성공적 방역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언적 차원에서 출발했다.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보완적 사회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게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괄적 개념이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를 해소하겠다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른 국정 철학이기도 하다.

한국판 뉴딜 역시 비슷한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성장 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개념을 뼈대로 하고

있고, 그린 뉴딜은 저탄소·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전반적인 개념과 함께 이를 구성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기존 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환을 왜 시도하려는지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연설의 배경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라며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을 통해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디지털 뉴딜 구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의료·교육·사회 전 분야에 걸친 디지털화 추진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며 “더 대답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다. 코로나 대응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성장 축이라면 고용안전망 강화는 성장 중심 정책에서 밀려난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사회안전망 없이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실현할 10대 대표사업도 함께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담겼다. 그린 뉴딜에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톱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고 114조원을 포함해 2025년까지 민간과 지자체에서 약 160조원 규모를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를 총 19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뉴시스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대책 추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민주김성주 의원, ‘예방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 보호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13일 감

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비 피해 예방책,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 필요”

부안 상습침수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4일 최근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부안 상습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 근본적인 홍수 예방대책 모색에 나섰다.



이날 이 의원은 부안부군수, 지역부

민 등과 함께 부안 주산면 신울천, 보안면 운흥천 등 상습피해 지역 2곳을 찾았다. 그는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 전날까지 내린 장맛비로 부안 위도 230mm와 새만금 지역 205mm, 김제176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는 많은 강수량과 돌풍을 동반해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자동차 침수피해 등 수 십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범람 때문에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보다 더 많은 비가 왔을 땐 더 큰 피해로 번질 수 있어 많이 위험하다”는 침수피해

지역 마을주민에 이원택 의원은 “장맛비가 많거나 태풍이 왔을 경우 피해는 겹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면서 “피해가 일어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천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근본적인 홍수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높아 보이며, 수초로 인해 느려지는 유속으로 하천이 범람하기도 해 하천에 대한 확장 또한 필요해 보인다”며 “하천개발 방식에 대한 변경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